

1997년도 에너지業界 新年人事會 개최

에너지業界 협력증진 및 유대강화

한국에너지협의회는 지난 1월 9일 安光啓 통상산업부 장관을 모시고 한전 본사 후생동에서 회원사 대표 및 임원 그리고 에너지관련단체 주요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97년도 에너지業界 新年人事會를 개최하였다.

李宗勳 한국에너지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고도성장 기의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이끌어 온 에너지産業界는 21세기의 세계화를 향한 선도적 위치에 설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安光啓 통상산업부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자원외교의 적극적 전개와 해외자



원 개발을 확대하고 에너지 공급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에너지 수급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新年人事會에는 대한석탄공사 李相倫 사장, 대한광업진흥공사 趙鍾益 사장, 한국가스공사 韓甲洙 사장, 한국석

유개발공사 張錫靖 사장, 한국전력기술 李虎林 사장, 한국지역난방공사 金泰坤 사장, 유공趙圭鄉 사장, LG칼텍스정유 許東秀 사장, 한화에너지 禹完植 사장, 현대정유 鄭夢赫사장 등 에너지관련 業界 주요인사가 대부분 참석하였다.

1997년도 定期總會 및 28次理事會 개최

금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한국에너지협의회 第28次理事會가 지난 2월 18일 오후 2시30분 한전 본사 7층 706호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96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과 잉여금 처분(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고, 9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으

이어서 97년도 定期總會가 오후 3시부터 옆방 709호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번總會에서는 96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과 잉여금 처분(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고, 9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으

며, 임기 만료된理事를 선임하였다.

이날 선임된理事는 한국석유개발공사 張錫靖 사장, 한국전기안전공사 洪世基 이사장, 효성중공업 柳鍾烈 사장등 3名이 재선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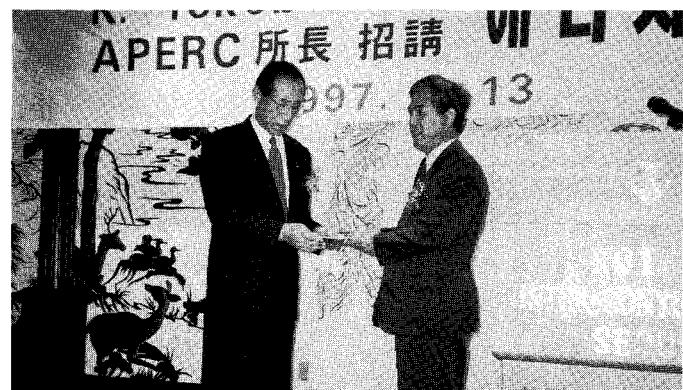
요코보리 소장 초청 에너지관련인사 간담회

韓·日간 에너지부문 협력방안 제시

한국에너지협의회는 지난 2월 13일 인터컨티넨탈 호텔 로즈룸에서 아태지역에너지연구센타(APERC) 요코보리 소장을 초청하여 「에너지계 관련 인사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행사에는 에너지협의회 회원사 및 관련 기관 인사 6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종훈 회장(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한국의 산업계는 노조의 불안과 경제적 불황이 겹쳐 심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더구나 지난해의 무역수지적자는 206억 달러에 달하고, 그 중 에너지 수입액이 전체수입액 1,500억 달러의 16.3%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에너지계도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정책과 수급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요코보리 소장의 강연은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초청연사를 소개하였다.

이어서 연사로 나선 요코보리 소장은 “韓日間 에너지부



문의 협력방안”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한일 양국간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5가지를 제시하였다.

①에너지수급 전망 및 에너지정책 정보교환의 활성화, ②석유제품의 수출입 등 에너지 교역 및 투자확대, ③공동이행(JI) 방안 도입으로 환경친화적 기술이전의 계기 마련, ④전력망 연결, 석유 및 가스파이프라인 건설, 석유저장시설 등 에너지시설의 공동건설로 동아시아지역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한일 양국의 에너지부문 효율향상, ⑤한일 양국 공동으로 중국 등 제3국에 진출하는 방안 등을 중점 강조하였다.

강연이 끝난 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전홍석 부장과 현대엔지니어링 이임택 부사장은 「APERC의 장기계획, IEA 같은 세계적기구와 APERC 같은 지역기구간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및 「일본의 민자발전(IPPs), 기타에너지부문의 규제완화 및 시장개방 등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각각 질의하였다.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본지 「초청강연」 내용편을 참고 바람).

요코보리 소장 일행은 이날 오천 문희성 고문(한전 이사장) 및 장기현 사무국장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에너지협의회 사무국을 방문하고 돌아갔다.